

# ECONOMICS NEWSLETTER 제39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김대일 / 편집인 : 이지홍 / 편집조교 : 고중산 / 발행일 : 2018년 8월

## 신임 경제학부장 인사말



김대일 경제학부장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경제학과, 경제학부 동문선·후배 여러분, 경제학부 재학생과 학부도 여러분, 이번 7월부터 2년간 경제학부 학부장으로 봉사하게 된 김대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시작한 이후, 1975년에 경영대학과 분리되어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과/무역학과 체제로 자리 잡은 뒤, 무역학과가 국제경제학과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가 통합되어

경제학부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저희는 경제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여 왔으며, 우리 동문들이 학계, 재계 및 정·관계 모두를 아우르며 국가의 동량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오며 있어서 우리 동문들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저희 경제학부에는 38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7~800명의 학부생, 그리고 2~300명의 대학원생이 학문 정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여명의 행정직원 분들께서 학부의 강의 및 연구 행정을 지원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재 구성원 모두가 선배 교수님, 선배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선임 직원 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룩하여 오신 경제학부의 업적과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한 경제학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맑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들과 학부도 여러분께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지원에 저희 학부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여 온 우리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최근 3% 미만의 저성장 시대가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 등의 여러 외부 요인들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 내부적 요인들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그 결과 나타난 장기적인 소비 침체, 투자 위축, 청년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음에 따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우려도 확산되고 있고, 사회 여론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분열되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경제학부에 대해, 학문적인 연구에만 집중할 뿐 현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일부 있

습니다. 저희 경제학부의 교수진과 학생들 모두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학문적 성과 발전이 선행되지 못하면, 그 대안 제시도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실패하여 온 다른 정책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 저희 경제학부는 언제나 그래 왔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연구 성과와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신 여러 교수님들의 연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최고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나무랄 데 없는 인재 배출에 최대한 노력하여, 동문 여러분들께서 항상 경제학부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여러 동문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독지가 여러분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경제학부를 지원해 주셨고, 학부 교직원 일동과 학생들 모두 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지금 저희는 학생 교육환경의 개선과 학문적 연구 활성화, 그리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경제학부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학부의 비전을 DIRECT 21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학부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려고 합니다. DIRECT 21은 우리 사회의 발전(Development) 및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Industrial revolution 4.0)을 이룩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Research)과 창의적 인재양성(Education), 그리고 한국경제의 나침반 역할(Compass)에 충실하며, 이를 통해 21세기 세계 최고로 도약(Top)하겠다는 비전과 목표 구현을 의미합니다.

동문 및 학부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경제학부의 새로운 노력에 동문 및 학부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동문 여러분들과 학부도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저희 경제학부의 교육과 연구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싶습니다. 모쪼록 동문 여러분과 학부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4)
-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2)
- 미국 라이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1992-1996)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996-1998)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8-현재)
- 현) 한국노동경제학회장

## 교수수상 및 동정

### 김병연 교수,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김병연 교수가 2018년 5월 16일에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학술연구상은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우수 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학술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김병연 교수는 그동안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과학적 연구가 어려웠던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엄밀한 학문적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 연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하였다. 이를 통해 실증적 북한 경제연구의 토대를 확립하였으며 활발한 연구 성과를 국내외 언론에 소개하여 대북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체제이행 및 비교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인정받아 비교경제학 세계총회 운영위원 및 차기총회 현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서명환 교수, 2015-17 Tjalling C. Koopmans Econometric Theory Prize 수상



서명환 교수가 Javier Hidalgo(London School of Economics) 교수와 함께 2015년 4월에 학술지 Econometric Theory에 게재한 “Specification Tests for Lattice Processes” 논문이 지난 2년간 (2015-2017년) Econometric Theory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되어 2015-17 Tjalling C. Koopmans Econometric Theory Prize를 수상하였다. 본 상은 Yale대학의 Cowles Foundation에서 수여하고, 1975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찰링 코프만스(Tjalling C. Koopmans)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 홍석철 교수, 제48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홍석철 교수가 2018년 4월 5일에 제48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48회이다. 이 상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으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학자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홍석철 교수는 호이트 블리클리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기후에 적응하기 : 미국 역사의 교훈(Adapting to the Weather : Lessons from U.S. History)' 논문을 통해 인류 역사상 불가항력으로 알려진 기후변화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분석 틀을 제시한 공을 인정받았다.

### 박용용 교수, 제11회 김태성 학술상 수상



박용용 교수가 2018년 2월 1일에 한국계량경제학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김태성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본 상은 40세 이하 경제학자들 중에서 학문적 성취가 탁월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2년마다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박용용 교수는 2016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로 부임하였고, 전공은 거시경제학이다.

### 김대일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장 겸보



지난 2년간 경제학부장직을 수행하였던 류근관 교수에 이어, 김대일 교수가 2018년 7월 16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 경제학부장 직을 겸보하게 되었다.

김대일 교수는 경제학과 80학번으로 1992년에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라이스대학교(Rice University) 경제학과 조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1998년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다.

김대일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학이며, 현재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16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공을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 어이빈 토마센(Oyvind Thomassen) 교수 승진



어이빈(Oyvind) 교수가 2018년 3월 1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어이빈(Oyvind) 교수는 2010년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1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하였다. 어이빈(Oyvind)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조직론이며, 2017년 8월에 경제학 최고 저널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논문 “Multi-category Competition and Market Power: a model of supermarket pricing”을 게재하였다.

## 교수 신규 임용



2018년 9월부터 장용성 교수가 경제학부에 부임한다. 장용성 교수는 1997년에 로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부 조교수, 미국 연방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로체스터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부교수를 지낸 바가 있다.

장용성 교수는 거시경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낸 학자로 손꼽힌다. 2013년에는 연구 업적이 탁월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조락교 경제학상’을 받았다. 2018년 2학기에는 거시경제이론을 강의한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는 매 학기 김태성 세미나, BK21 세미나, SURE(SNU Research in Economics) 세미나, H-Trio (Health, History, and Human Capital) 세미나, CDJ(분배정의연구센터) 세미나,

CEBSS(실험행동사회과학센터)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세미나에 대한 정보는 경제학부 홈페이지(econ.snu.a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면에서는 여러 세미나 중 선별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SURE International Workshop with Young Economists

경제학부는 2018년 6월 12일에 졸업을 앞둔 신진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했던 이전 워크숍과는 달리 신진 경제학자들을 초청한 이유는 경제학부 대학원생들에게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에게 선배들의 유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본 행사는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고 4명의 신진 경제학자 최준규(University of Maryland), 윤장수(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김성룡(Columbia University), 나승훈(Columbia University)이 참석하여 각자의 논문을 발표하고 경제학부 대학원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SURE는 SNU Research in Economics의 약자로서 서울대학교 세계선도 중점학과(부)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경제학부가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명이다. 경제학부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등 각 분야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H-Trio 2018 Summer Boot Camp: 실전 계량경제학



이석배 교수의 강연 모습



이명재 교수의 강연 모습

2018년 7월 26-27일 양일에 걸쳐 “데이터의 정글 속에서 경제학 이론으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H-Trio 2018 Summer Boot Camp가 아시아연구소(101동) 영원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 교수 및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하는 타 학과 대학원생 등 120여명이 참석해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본 행사에는 이석배(Columbia University) 교수와 이명재(고려대학교) 교수가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이석배 교수는 응용미시연구에서 제도나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그리고 이명재 교수는 그 방법들 중의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이 무엇이며,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교수 신간 안내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이근, 김호원, 김부용, 김욱, 김준연, 노성호, 노수연, 박태영, 송원진, 오철, 임지선, 최준용 지음  
21세기북스(2018년 4월 5일 출간)

이 책은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강세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혁명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산업과 특히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정부정책 차원의 정책과 기업 전략 도출은 시스템 실패와 미스매치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기술,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하는 것들과 현 한국사회의 법령 규제, 제도 간에 어떤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강원택, 구인회, 권현치, 김용창, 주병기 지음  
푸른길(2018년 6월 15일 출간)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언젠가부터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노오력'이라는 말이 심상찮게 들린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자조한 것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이 외에도 흠수저나 금수저, 헬조선 등과 같은 말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곳이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 세대로부터 계층이 분화되고 고착화되어, 더는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고 해도 이미 개천이 말라 버렸다면 어떻게 용이 날 수 있었는가? 한국의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이며, 한 사람의 재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비단 이는 경제적 격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은 장래 아이들의 교육 기회, 건강 그리고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서도 격차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계속 축적되며, 사회 내 갈등은 점점 불가피해진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현상이 아닌 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신축사업 기공식



식사(式辭)를 하고 있는 성낙인 총장



기공 기념 테이프 커팅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신축사업 기공식이 2018년 7월 9일 오후 4시에 아시아 연구소(101동) 영원홀과 신축부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낙인 총장, 성기학 (주)영원무역 회장, 본부 보직자, 경제학부 동문 및 전·현직교수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우석경제관 신축사업은 성기학 (주)영원무역 회장이 2016년 12월에 기부한 발전기금 100억 원과 국고출연금 13억 원, 학부 발전기금 13억 원을 합쳐 총 126억 원의 사업비로 착수하게 되었다.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인 우석 경제관은 연면적 5,906㎡(약 1,780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학제간(學際間) 연구실, 대형 및 중형강의실, 열린도

서관, 국제세미나실 등이 들어선다.

'우석(愚石)'은 성기학 회장의 부친인 고(故) 성재경 선생의 호다. 성재경 선생은 1950~60년대 경남 창녕에서 양파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농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농촌소득 증대에 힘쓴 인물이다.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인재를 배출해온 경제학부가 우석경제관 건립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것임을 상징한다.

한편, 서울대 경제학부 동문들은 '우석 경제관' 건립 사업을 계기로 '경제학부 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연말까지 발전 기금 400억 원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 모금 안내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경제학부는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오/헌/내/후)”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은 우석경제관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 연구 기금, 학생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 경제학부 발전기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http://pf.kakao.com/\\_JXlxnC](http://pf.kakao.com/_JXlxnC)



경제학부 모금 플친

주소 또는 QR 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접속하시면, 최신 모금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경제학부 발전기금 참여 방법

- 1. 경제학부 발전기금 온라인 간편 약정:**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간편 약정이 가능합니다.
- 2. 오프라인 약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편한 방법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팩스 발송: 02-875-8860

•이메일 발송: kang97@snu.ac.kr

•우편발송: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6동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사무국(206-1호)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경제학부 강내영 행정실장  
전화: 02-880-6361 이메일: kang97@snu.ac.kr

## 경제학부 발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11월 13일 경제학부 역사상 처음으로 ‘후원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류근관 학부장은 “부족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대 경제학부가 한국경제에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호응해 행사에 참석한 민·관·정·재계를 망라한 150여명의 동문들은 뜻을 모아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전 부총리)를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발전위원회는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께서 쾌척한 100억 원을 기반으로 전체 400억 원의 목표를 세우고 각종 모금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은 물론 전·현직 교수들, 학부모들, 그리고 외부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포함한 100여명이 위원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회장단, 고문단, 그리고 임원진에 각각 포진하여 모금목표 달성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동기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발전위원회에 참여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47학번 안태호 선배님을 위시하여 50년대, 60년대 학번 대표님들도 동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주시는 열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발전위원회는 올 7월에 제8차 회장단 월례모임을 통해 2018년 상반기 모금활동을 정리하고 하반기 모금활동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올 2월 공식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이래 총 410여명이 넘는 동문과 학부모들이 모금에 동참해 성기학 회장께서 출연한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5억 원의 모금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금활동은 크게 동문모금과 기업모금으로 나뉘 진행되었습니다. 동문모금은 최대한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자는 취지로 학부동문, 대학원동문, ASP(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동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기부자는 98명을 기록하였고, 이중 1억 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만도 28명이나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 6월부터 7천여 학부동문을 대상으로 시작한 “간편 약정 캠페인”은 매주 수십 명의 동문들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환경이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모금에 있어서도 여러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서주셔서 미래에셋에서 20억 원의 기부출연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는 이번 경제학부 발전계획을 통해 단순히 모금성과를 얻는 것을 넘어 한국경제발전이란 대의로 전체 경제학부 동문이 하나 되는 기회를 얻고자 다양한 동문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4월 교수간담회,



5월 동기대표 조찬모임, 6월 동문 금융인 조찬세미나, 7월 우석경제관 기 공식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통해 동문들이 서로 긴밀한 스킨십을 나누며,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실용적인 분석과 제언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4/18일자 매경, “서울대 경제학부 한국형 NBER 만든다.”, 7/21일자 한경, “서울대 경제학부 한국 경제정책 산실 꿈꾼다.” 등)

이번 모금 캠페인이 전체 동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훈훈한 모금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은퇴한 지가 20년도 넘어 낼 수 있는 정성이 너무 적어 미안하다고 말씀 주시던 50년대 학번의 대선배님으로부터, 모금소식을 듣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로 생각되어 본인의 두 달치 월급을 선뜻 보내온 어느 사회 초년생, 먼저 떠나간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남편이 나온 경제학부의 모금에 늘 잊지 않고 참여해주시는 분까지, 또, 먼 미국과 홍콩 등지에서 모교발전을 위해 정성을 보내온 동문들까지 너무나도 귀중한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400억 원 모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에는 기업모금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학부장 교체시기를 맞아 지금까지 불도저처럼 발전계획을 끌고 온 류근관 전임 학부장과 새롭게 취임한 김대일 신임 학부장이 서로 하나가 되어 전체 교수진들은 물론 발전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함께 기업모금에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황영기 부위원장은 “현재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망라한 정교한 모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나 워낙 기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이를 넘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전체 동문들의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의 규모는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 경제학부가 준비하고 있는 발전계획과 그 취지에 공감하는 그 어떤 기업이라도 크기 여하와 업종을 막론하고 저희 발전계획의 동반자로 모시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위원회는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우를 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기부금 출연이 가능한 기업과 개인을 찾고 있으며, 경제학부 발전계획에 공헌할 동문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또한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업, 지원자, 사회 모두를 웃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



박재우 학부 13학번

작년 6월, 블라인드 채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경쟁의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취업에 큰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할 경우 학력, 학점, 자격증 등이제까지 신입직원 채용 시 중요하게 여겨졌던 평가 기준들이 전부 블라인드 처리된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기 소개서, 직무능력평가시험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해서만 직원을 선발하게 된다. 이런 블라인드 채용은 취업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선입견으로 작용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여론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였지만 기업 내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설문진 2명중 1명은 블라인드 채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소 과격적인 블라인드 채용은 시행되어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과 지원자는 물론 사회에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지원자를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학력, 학점, 자격증 등으로 증명되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능력도 결국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다. 다시 말해 기업은 학력, 학점, 자격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자의 정보는 성실성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쌓은 지식은 실질적인 업무와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똑똑하고 성실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보다 기업의 업무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스펙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보다 직무능력 평가시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로 평가하는 것이 기업의 선발 목적에 더 부합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지원자들의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에는 노력하면 뛰어난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라 하더라도 학력으로 인한 진입장벽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점, 자격증 등이 부족한 지원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넓지 않았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면 모든 지원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실력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은 모든 사람에게 노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지원자의 인력풀이 넓어져 우수한 지원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가 마련되면 취업 시장에 존재했던 기존의 불신을 잠재울 수도 있다. 취업시장에서 계층 간의 갈등이 완화되면 공정한 사회로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사회의 불필요한 경쟁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대학교 입시까지 경쟁을 치르고 나면 학점과 스펙을 위한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다수가 선호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학점과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

기보다 맹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시험을 잘 보기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성은 무시되고 획일적인 기준이라 성적 줄 세우기만 반복된다. 오로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현실은 승자 독식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좋게 지금 이 시대가 칭송하는 능력을 타고난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우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행복한 사회는 각자의 다양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가능해진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명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는 현실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도 학점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과도한 학점경쟁과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진정으로 대학이 목표하는 학문에 학생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적은 노력으로 높은 학점을 딸 수 있는 강의에 학생들이 몰리고 수업 안에서도 내용보다는 학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면 학점에만 매몰되어 있는 대학 강의실이 조금이나마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한편 학력, 자격증 등이 지원자를 선별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좋은 스펙을 가진 지원자의 경우 직무 능력이 뛰어난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화려한 스펙은 지원자를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해고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 오히려 기업에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학력, 학점, 자격증 등을 중요시한 결과 획일적인 스펙이 양산되어 유의미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기 어려워졌다. 또한 실질적인 직무 능력과 학력, 학점 등은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 주어진 답을 찾는 대부분의 시험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은 사람은 답이 없는 새로운 문제를 수없이 직면하는 기업의 현실과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좋은 스펙이 합리적인 선발 자료로 이용된다면 실제 직무 능력과 좋은 스펙 사이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부터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했을 때 높은 학력을 보유한 사람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좋은 스펙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왜곡되어 취업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은 좋은 스펙이 지원자를 선별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합치되지 않는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고 선입견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다. 좋은 스펙은 사람을 바라보는 틀로 작동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좋은 스펙이라는 틀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 좋은 스펙이 지원자를 선별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더라도, 그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반영되고 있다면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 지원자 그리고 사회에 모두 장점이 있는 제도다. 현실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일 뿐 블라인드 채용을 멈추어야 할 이유는 아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제학부 공동 체육대회 개최



2018년 4월 6일에 상과대학 총동창회가 주관한 ‘경영대학-경제학부 공동 체육대회’가 학생 약 200명(경제학부 80명, 경영대 120명), 교수 30명, 졸업생 동문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악학생생활관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상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옮겨지면서 경영대와 경제학부로 분리되었지만, 서로 연대감을 갖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번 합동체육대회는 대회 이전부터 경영대 및 경제학부 학생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불러 모았다. 학생들은 사전공모를 통해서 재치 있는 플랜카드 문구를 정해 SK경영관(58동) 및 사회대(16동) 앞에 플랜카드를 걸어 놓았으며, 이번 체육대회에 ‘설경전(서울대 경제·경영 대항전이라는 뜻)’이라는 애칭을 붙이기도 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이뤄진 이번 체육대회는 총 5개의 종목으로 진행됐다. 오전 중에는 이스포츠(E-Sports) 대회가 있었으며 이후 관악사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줄다리기와 축구, 스피드 계주 및 아이템 계주, 그리고 농구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 중 학생들은 각 과와 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상기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만족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경영대와 경제학부 사이의 더 많은 교류를 기대했다.

서울상대는 1946년 8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개교하여 경영학과(상학과 포함)와 경제학과(무역학과 포함)가 하나의 단과대학을 이루고 있었으며, 1959년 이후 매년 홍릉제(대학축제)를 개최했고, 축제 기간 중에 체육대회를 열어 축구, 배구 등 과별 운동경기를 가졌었다. 그러나 1975년 3월에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에는 상과대학이 경영대학과 경제학부(사회과학대학 내)로 분리되었고, 홍릉제도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번 체육대회는 43년 만에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8면에서 이어집니다.)

제학 북·부전생 등 보다 다양한 학생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경제학부 교수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만남의 장입니다. 작년에는 11월 16일, 호암교수회관 크리스탈룸에서 ‘경우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수십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준규 교수님, 류근관 교수님, 사피로 교수님 등 몇 분의 교수님께서 방문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교수님들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소소한 이벤트에서 경품을 타기 위해 노력하는 등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 이외의 활동들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앞서 언급한 활동 외에도 경제학부 학생들을 위해 여러 활동들

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학기 전공도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한 뒤 수집 권의 경제학 전공 도서들을 구비하여 대여해줌으로써 전공 도서 구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있으며, 학기가 끝난 후에는 대여했던 전공 도서를 바로 반납 받아 다음 학기 대여 사업 역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가을학기에 항공점퍼, 롱패딩 등 경제학부 단체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 특성상 진입 시에 받는 후드 말고는 단체복이 따로 없고, 그 후드조차 받을 기간을 놓치거나 새내기 때 반에서 맞춘 단체복을 입기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경제

## 제32회 매경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우수상,佳作 수상



2018년 3월 16일에 개최된 제32회 매경 대학(원)생 경제논문 시상식에서 서울대 경제학부 3팀이 최우수상, 우수상,佳作를 수상했다.

최우수작에는 김승갑(경제), 김지환(경제), 김주창(경영) 학생이 고용 부문에 응모한 “국내 대졸-전문대졸 근로자 간 임금격차 요인분해” 논문이 선정됐다. 학부 3학년생인 김승갑, 김지환, 김주창 학생은 경제학부 소속 ‘에스퍼스(SPFERS)’ 동아리 회원들로, 지난겨울 방학을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보냈다. 김지환 학생은 “평소 노동경제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인 만큼 관련 연구를 해보고 싶어 주제를 선택하게 됐다”며 “수업시간에 배운 모형을 사용해 대졸-전문대졸 임금격차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 논문은 ‘무조건적인 4년제 대학 선호 현상의 원인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우수상에는 경제학부 김한빛, 김윤수, 진지홍 학생이 응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비용보험의 도입 연구” 논문이 선정됐다. 진지홍 학생은 “법률비용보험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미비된 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佳作에는 경제학부 윤영규, 조건희 학생이 응모한 “거래소 간 자산 교환비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기회 분석” 논문이 선정됐다.

학부 단체복을 제작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 가을학기에 제작한 항공점퍼와 롱패딩 모두 실용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디자인 역시 양호하여 구매했던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 함께 일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매학기 신입회원을 뽑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회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일정은 2학기 초에 경제학부 페이스북, 포스터 등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포터즈

글: **지승윤** 서포터즈 회장, 학부 16학번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서포터즈입니다. 경제학부는 훌륭한 38분의 교수님들과 한 학년에 150명이 넘고, 총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대한 학부입니다. 매우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같은 수업을 듣는다 해도 서로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적습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회대 출신 경제학 전공생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며, 2017학년도 이전까지는 사회대 광역생으로서 경제학부로 진입한 학생들 역시 각 반에 흩어져 있어 경제학부 전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경제학부 교수님들께서 각 경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존경받고 있음에도, 평소 학부생들은 교수님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이렇듯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경제학부 학생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교수님 및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주도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도교수



이준구 명예교수님

김완진 교수님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초대 지도교수님이셨던 이준구 교수님께서 2015년 2월자로 명예 퇴임하신 후 김완진 교수님께서 현재까지 지도교수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김완진 교수님께서서는 서포터즈 활동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저희들과의 소통 역시 중시하고 계십니다. 이번 5월달에 있었던 스승의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포터즈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종종 조언해주시곤 하십니다. 또한 이준구 교수님 역시 지도교수 역할에서 물러나셨음에도 경제학부 서포터즈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주시면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 스승의 날 행사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학부생들이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에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교수님께 좀 더 다가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학우 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자 매년 봄 학기, 스승의 날 전후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2~3주 전에 교수님들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참여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을 섭외한 후, 경제학부 학우들의 지원을 받아 교수님과 학부생들 사이에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자리에서는 학부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남을 나누며 평소 수업에서 보기 힘들었던 교수님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교수님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1학기에도 5월 14일 월요일부터 5월 21일 월요일까지 약 일주일여 걸쳐 교수님들과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철인 교수님, 조성진 교수님, 김진우 교수님, 류근관 교수님, 이상승 교수님, 전영섭 교수님, 홍석철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 황운재 교수님, 김완진 교수님, 이철희 교수님, 주병기 교수님, 이필상 교수님, 이준구 교수님, 최병선 교수님, 김대일 교수님, 김병연 교수님, 김영식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셔서 학생들과의 만남에 응해주셨고, 샤프로 교수님, 이브 게린 교수님, 토마센 교수님 등 외국인 교수님들께서도 흔쾌히 참여해주셔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귀중한 만남의 장도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교



이준구 명예교수님



김대일 교수님



Oyvind Thomassen 교수님

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이 계시는 단독방을 만들어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등 색다른 추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 경제학부 진로간담회



타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진로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장래에 어떤 일을 하며 삶을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크게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계의 일원이 될지, 행정고시를 쳐서 공직에 진출할지, 한국은행 등의 금융 공기업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자 봄 학기마다 각 분야의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진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4월 2일, 4월 5일 이틀에 걸쳐서 진로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올해 2월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신 김치승, 임동건 선배님께서, 둘째 날에는 작년에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신 안준석 선배님, 한국은행에 입행하신 유영철 선배님께서 참여하셔서 학생들에게 각 분야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셨습니다. 특히 각 분야에 갓 진출한 경험을 살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학생들의 질문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 경우의 밤 행사



‘경우(經友)의 밤’ 행사는 경제학부 서포터즈에서 보통 가을학기에 주최하는 행사로서, 사회대, 자유전공학부 경제학 전공생뿐만 아니라 경

##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13년9월1일~2015년8월31일)의 중간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경제/경영, 전국단위)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 2018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사업단은 2018년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15회
- ▶BK21플러스/IER Public Seminar 4회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4회
- ▶BK21 플러스 H-Trio 워크숍 7회
- ▶BK21플러스 공동주관 학술행사 2회
- ▶BK21플러스 특별강연 2회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6회
- ▶실험사회과학 워크숍 1회
- ▶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 3회

###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Jungsuk Han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Why is Capital Slow Moving? Liquidity Hysteresis and the Dynamics of Limited Arbitrage

**Sukjin Ha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Identification in Nonparametric Models for Dynamic Treatment Effects

**Kang-kook Lee (University of Tokyo)**  
소득주도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Maryam Saeedi (Carnegie Mellon University)**  
Certification, Reputation and Entry: An Empirical Analysis

**Juwon Se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Randomization Tests for Equality in Dependence Structure

**Yoram Halevy (University of Toronto)**  
Behavioral Bargaining

**Chrysostomos Tabakis (KDI)**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Antidumping Protection

**Frederic Moisan (University of Cambridge)**  
Competing to be a Star

**Sanjeev Goyal (University of Cambridge)**  
The Strategy of Conquest: The Rise of Empires

**Faruk Gul (Princeton University)**  
Evaluating Ambiguous Random Variables and Updating by Proxy

**Tim Armstrong (Yale University)**  
Finite-Sample Optimal Estimation and Inference on Average Treatment Effects Under Unconfoundedness

**Lorenz Goette (University of Bonn)**  
The Behavioural Mechanisms of Habit Formation: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on Water Conservation

**Yurim Lee (University of Washington)**  
Excessive Firm Turnover in the Shadow of Unemployment

**Dongkyu Chang (University of Hong Kong)**  
Equilibrium Delay in Bargaining with Buyer's Outside Option

**Yoonseok Lee (Syracuse University)**  
Nonparametric Spatial Threshold and Two-Dimensional Sample Splitting

### BK21플러스/IER Public Lecture Series

**이재욱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성태운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

**Dmitry Shapiro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Incentives of Low-Quality Sellers to Disclose Negative Information

**조성진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The Dynamics of Hotel Pricing

### BK21플러스사업단 Brown Bag lunch 세미나

**김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Retirement and Cognitive Ability in Korea

**황인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Effect of Non-standard Jobs on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into Wage and Working Hours

**이은익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Probability Weighting and Cognitive Ability

**오종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그들은 왜, 기초노령연금을 늦게 신청하였는가? -기초노령 연금을 지각신청하는 이상현상(anomalies)에 관한 실증분석

### BK21플러스 H-Trio 워크숍

**박우람 부연구위원 (KDI)**  
Minimum Wage Introduction, Employer Response, and Labor Productivity of Firms: Evidence from South Korea

**박이택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의 임금불평등성의 역사적 파동

**권현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고원식, 서민진, 유인경, 윤양근, 정원혁 (이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Mom, when do you want to work? Culture and Economic Decision: Evidence from Immigrants in Korea

**특목고 진학 계획과 가계소득의 관계 분석**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변수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분석

**Safe Water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 Modern Korea**  
Basic Old Age Pension and the Cognitive ability of the Elderly

**윤창나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Waiting for Affordable Housing

**박윤수 부연구위원 (KDI)**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이영욱 부연구위원 (KDI)**  
The Effect of Parental Leave Benefits on Mother's Return to Work: Evidence from Korea

**황수경 통계청장 (통계청)**  
통계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계청 데이터의 활용

**Chinhui Juhn 교수 (University of Houston)**  
Coordinated Work Schedules and the Gender Wage Gap

### BK21플러스사업단 공동주관 학술행사

**2018 International Joseph A. Schumpeter Society Conference**

[서울대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추격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H-TRIO 2018 Summer Boot Camp: 실전 계량경제학 데이터의 정글 속에서 경제학 이론으로 살아남기**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SSK 뉴노멀 시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명재 (고려대학교)**

Difference in Differences  
Identification in Microeconometrics

### BK21PLUS 특별강연

**Charles Engel (University of Wisconsin)**  
Empirical Modeling of Foreign Exchange Rates

**Humberto Llavador (University of Pompeu Fabra)**  
Sustainability and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김국동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Nudging Customers to Drink Less Unhealthy: Field Experiment in South Korea

**안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Supplemental Health Insurance in the Colombian Managed Care System: Adverse or Advantageous Selection? (Adrey et al, JHE, 2017)

**정원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National Building Through Foreign Intervention: Evidence From Discontinuities in Military Strategies (QJE, Melissa Dell and Pablo Querebin)

**허은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Acting Wife : Marriage Market Incentives and Labor Market Investment (AER, Leonardo Bursztyn, Thomas Fujiwara, and Amanda Pallais)

**김상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Ideal Point Estimation Based on Bayesian and Matrix Factorization

**심재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How Does Household Income Child Personality Traits and Behaviors? (AER, Akee et al.)

### 실험사회과학 워크숍

**안우영 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The Neural and Behavioral Control of Automaticity: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Neural Bases of Surmounting Pavlovian Learning Bias

### BK21플러스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김성희 (박사후연구원)**  
국제학술대회 "14th CEIS Workshop on European Economics" 참가 및 논문 "Immigrants,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Trust: A Country-Panel Data Analysis" 발표

**MAO ZHUQING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30th SASE Annual Meeting" 참가 및 논문 "How do economies grow within Global Value Chains(GVCs): A dynamic path Approach" 발표

**김진희 (박사과정)**  
국제학술대회 "30th SASE Annual Meeting" 참가 및 논문 "Determinants of PRO (Public Research Organization)- Industry Cooperation and its Impact on Firm Performance-Comparison of Manufacturing sector with Service sector in Korea" 발표

● 경제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2018. 1. 5. ~ 2018. 8. 10

1억원 이상

김수이 (경제 92)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조용격 (대구 그랜드호텔 회장)  
YBM (민선식 대표이사)

5천만원 이상

김 철 (경제 79)  
박승구 (경제 87)

1천만원 이상

강성수 (경제 82)  
강인구 (경제 86)  
김상남 (경제 66)  
김성훈 (경제 78)  
김신행 (법대 68)  
박문구 (국경 91)  
박상인 (경제 84)  
박준오 (경제 86)  
백상현 (경제 86)  
변양호 (무역 73)  
상영조 (경제 79)  
서동영 (무역 79)  
서창녕 (경제 86)  
성호섭 (경제 89)  
안병직 (경제 57)  
안승윤 (무역 81)  
양성수 (국경 91)  
영앤진회계법인 (강인중 대표)  
오강욱 (경제 56)  
유장희(유시왕) (경제 59)  
이기화 (무역 79)  
이상원 (무역 79)  
이준구 (경제 68)  
이천표 (경영 57)  
이혁진 (경제 93)  
인터베스트(주) (이태웅 대표이사)  
임동건 (경제 11)  
장용성 (경제 85)  
정경원 (경제 79)  
정운찬 (경제 66)  
정은섭 (국경 79)  
정택진 (경제 79)  
조준호 (경제 77)  
한덕수 (경제 67)  
황익균 (국경 79)

5백만원 이상

65학번 동기회  
김대중 (경제 66)  
김소용 (경제 79)  
김 영 (경제 84)  
김영현 (국경 91)  
김진현 (경제 79)  
김홍기 (무역 79)  
서장원 (경제 86)  
서정희 (무역 81)  
염용섭 (무역 81)  
이동규 (경제 74)  
이세영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부장)  
이영섭 (경제 78)  
전승철 (경제 81)  
조영탁 (경제 79)  
최병준 (경제 76)  
한순구 (경제 87)

1백만원 이상

(주)디앤디 (최경호 대표)  
(주)호산서비스 (남정우 회장)  
강명현 (경제 75)  
강병구 (경제 84)  
강승모 (경제 81)  
강영주 (경제 62)  
강용중 (경제 84)  
고강석 (경제 79)  
고병우 (경제 52)  
고승범 (경제 81)  
고 훈 (경제 84)  
곽대환 (경제 81)  
권선주 (경제 71)  
권영민 (경제 93)  
권영종 (경제 81)  
길경진 (경제 84)  
김대희 (경제 81)  
김동열 (경제 83)  
김병철 (경제 81)  
김성수 (경제 74)  
김소연 (경제 96)  
김승기 (국경 69)  
김영생 (경제 81)  
김영욱 (무역 81)  
김용민 (경제 70)  
김용하 (국경 84)  
김원주 박수연 (경제 01)  
김적교 (경제 54)

김정욱 (경제 84)  
김정환 (경제 71)  
김종규 이비인후과  
김종성 (경제 81)  
김종수 (무역 79)  
김중희 (경제 65)  
김태승 (경제 81)  
김학도 (국경 81)  
나길웅 (경제 61)  
남상열 (무역 79)  
남소정 (경제 02)  
남승수 (무역 79)  
노상섭 (학부모)  
노택선 (경제 79)  
류재준 (경제 84)  
류제원 (학부모)  
류춘호 (경제 79)  
문소영 (경제 94)  
문우식 (무역 79)  
박광수 (경제 84)  
박 원 (경제 91)  
박윤선 (경제 87)  
박재범 (경제 54)  
박재준 (경제 60)  
박정호 (경제 13)  
박종국 (학부모)  
박종길 (경제 86)  
박 철 (국경 81)  
박춘섭 (무역 79)  
박태호 (경제 71)  
박현주 (경제 54)  
박형규 (경제 79)  
박형수 (경제 86)  
방정현 (경제 00)  
방주완 (경제 84)  
배세달 (무역 77)  
배정운 (경제 59)  
배종섭 (경제 58)  
서명국 (경제 84)  
서봉경 (무역 80)  
성상열 (무역 81)  
손종원 (무역 81)  
송동섭 (경제 81)  
송성훈 (경제 84)  
송현중 (경제 83)  
신민영 (경제 81)  
신상섭 (경제 01)  
신익승 (무역 79)

심용재 (경제 85)  
양기석 (경제 81)  
오창석 (무역 79)  
옥우석 (경제 86)  
왕윤종 (경제 81)  
유근춘 (무역 81)  
유영성 (경제 84)  
유은상 (경제 78)  
유재상 (무역 80)  
유재원 (경제 76)  
유제봉 (무역 81)  
윤영진 (경제 72)  
이경태 (경제 66)  
이규호 (경제 86)  
이기욱 (국경 81)  
이면우 (무역 79)  
이민호 (경제 84)  
이병래 (무역 81)  
이석우 (경제 63)  
이선호 (경제 84)  
이세중  
이소한 (경제 81)  
이순호 (경제 86)  
이용동 (경제 84)  
이재광 (경제 81)  
이재울 (경제 72)  
이종윤 (경제 64)  
이종철 (경제 86)  
이주경  
이 준 (무역 80)  
이중열 (경제 86)  
이태룡 (경제 81)  
이태희 (경제 04)  
이필상 (초빙교수)  
이호준 (경제 86)  
인성회계법인 (유종오 부대표)  
임건태 (경제 91)  
임범상 (경제 86)  
임세희 (경제 81)  
임정덕 (경제 63)  
장시원 (경제 70)  
전봉걸 (경제 86)  
정규돈 (경제 81)  
정영석 (경제 79)  
정우현 (경제 81)  
정유신 (경제 79)  
정지원 (경제 81)  
정홍상 (경제 76)

조규범 (무역 81)  
조규홍 (경제 85)  
조성훈 (국경 89)  
조용만 (무역 81)  
조중용 (국경 86)  
조한규 (경제 92)  
조환복 (무역 71)  
조효승 (경제 84)  
주경철 (경제 79)  
채희울 (경제 79)  
최경선 (경제 84)  
최낙일 (국경 77)  
최성락 (무역 79)  
최성학 (무역 81)  
최우형 (경제 84)  
최윤규 (경제 79)  
최지철 (경제 86)  
최화경 (경제 88)  
탁갑균 (무역 71)  
한건웅 (무역 79)  
한민기 (경제 84)  
한인구 (무역 75)  
함지원 (경제 94)  
현승윤 (경제 92)  
홍이석 (무역 75)  
황동진 (경제 81)  
황재연 (경제 76)

1백만원 미만

곽상근 (경제 92)  
곽상인 (국경 91)  
구정은 (경제 15)  
권남열 (경제 92)  
권중배 (경제 69)  
김광재 (국경 90)  
김근영 (경제 86)  
김동환 (무역 68)  
김명현 (경제 98)  
김봉준 (경제 91)  
김영주 (경제 86)  
김용규 (경제 78)  
김윤한 (경제 07)  
김재석 (국경 91)  
김재익 (경제 81)  
김재호 (경제 86)  
김준모 (경제 98)  
김지웅 (경제 92)

(11면 하단에서 계속됩니다.)

## 장 학 금

### 장학금 수혜 현황

2018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348명, 대학원생 74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426명, 대학원생 39명이 수혜를 받았다.

### 2018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31명의 학부생이 장학금을 전달받았으며, 2018년 2월 27일 프레젠테이션에서 23명의 장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향상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 교무 및 학생활동

### 제72회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2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월 26일(월)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2명, 석사 14명, 학사 147명(최우등 65명, 우등 68명)을 배출하였다.

### 2018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8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후기모집에서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만을 모집하였고,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14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18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6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계량경제학', '국제경제론'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 국제화 추진 현황

### 2018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8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2명의 석사, 1명의 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21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3명이 선발되었으며 합격자 모두 중국 학생이다.

### 2018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 근	Economics of Catch-up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이철인	Studies in Public Economic Policies International Trade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Dmitry Shapiro	Studies i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1
Gueron Yves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1
Oyvind Thomassen	Numerical Methods Exercises in Economics

### 버클리대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8년 3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BESAP 참가자로 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 중 3명의 학생은 2018년 2학기에 나머지는 2019년 1학기에 파견할 예정이다. BESAP는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 Berkeley)와 경제학부가 협약을 맺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대 경제학과와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0면에서 이어집니다.)

김 진 (경제 86)	박진규 (경제 86)	유동근 (국경 92)	이진수 (경제 96)	최원호 (경제 86)
김진욱 (경제 92)	박효진 (경제 05)	유병희 (경제 92)	이한규 (경제 92)	최 준 (경제 09)
김진후 (경제 92)	백성준 (경제 86)	윤기오 (경제 86)	이호생 (경제 81)	최진웅 (경제 97)
김현태 (경제 02)	석일권 (경제 92)	윤인선 (경제 06)	장덕진 (경제 81)	최진호 (경제 92)
김혜영 (학부모)	선중규 (경제 92)	윤지상 (경제 92)	장병승 (경제 82)	최창규 (경제 00)
김호동 (경제 94)	손지승 (경제 92)	이건민 (경제 02)	장진동 (경제 06)	최창호 (경제 95)
김호진 (경제 86)	손창호 (경제 92)	이광수 (경제 01)	전민규 (경제 86)	하상우 (경제 92)
김효욱 (경제 92)	송길미 (국경 91)	이보성 (경제 86)	전성민 (경제 92)	한대우 (경제 75)
남해인 (경제 02)	신승렬 (경제 92)	이봉길 (경제 58)	정균희 (경제 92)	한성수 (경제 87)
류연재 (경제 92)	신우철 (경제 10)	이상목 (경제 92)	정신동 (경제 84)	한정희 (경제 86)
문중숙 (경제 98)	신재영 (경제 86)	이세준 (경제 92)	정우석 (경제 92)	허 완 (경제 10)
민정기 (경제 92)	안윤우 (경제 92)	이수형 (국경 94)	정운진 (경제 83)	홍석철 (경제 92)
박경찬 (경제 92)	안은경 (학부모)	이 슬 (경제 04)	정홍순 (경제 92)	홍정민
박상준 (경제 92)	안형익 (경제 86)	이승원 (경제 86)	정희섭 (경제 92)	홍형주 (경제 92)
박성하 (경제 98)	오금하 (경제 86)	이재성 (경제 92)	주용석 (경제 92)	황근주 (경제 82)
박세영 (경제 92)	오기제 (경제 92)	이정희 (경제 98)	지승민 (경제 10)	황희연 (경제 92)
박정수 (경제 59)	오상봉 (경제 70)	이준우 (경제 92)	채명석 (경제 06)	
박정주 (학부모)	오세문 (경제 92)	이중교 (경제 86)	최낙천 (경제 92)	

